

# 전남 해상풍력 발목 잡는 '규제 전봇대 3개' 뽑힌다

### 군 작전성 기준 개선...발전기 높이 2배 상향 추진 습지 보호구역에 횡단 철탑 구축 허용...사업비 절감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10→25% 확대...사업이익 도민 환원

전남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 전봇대 3개'가 뽑히게 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큰 장애물이었던 '3개 규제'를 지속적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첫째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이다. 군 작전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까다로운 규제로 손꼽혔다.

국방부에서는 레이더를 가리고 막는 장애인 '차폐 발생'을 우려해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피트(152m)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를 어렵게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혁신 전담기구(TF)를 비롯해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정점화한 결과 결국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는 해상풍력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해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전남도가 협의 요청한 발전기 높이를 기존 50피트(15.2m)에서 1000피트(304.8m)로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 보호구역 내 가공(架空·육상) 송전선로 허용이다. 현행 법령상 습지 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 기인 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선로 구축 사업비 3829억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크게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발전소로 연결되는 공동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마지막 세 번째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10%→25%)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레고랜드 실패 등의 이유로 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상풍력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자한도 상향을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200억원에서 786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전남도가 앞장서 걸림돌을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세 건의 규제가 모두 해소되면 가속화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용 산단 조성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개발공사 '기후행동 1.5°C 탄소중립챌린지' 캠페인 전개

전남개발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기후행동 1.5°C, 탄소중립 챌린지'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기후행동 1.5°C'는 환경부 산하 한국기후·환경네트워드가 미래세대와 일반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업과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후행동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기후행동 1.5°C, 탄소중립챌린지' 캠페인은 전 임직원이 온실가스 약 2톤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출퇴근 걷기', '자전거타기', '잔반제로', '퇴근 시 PC완전종료' 등 일상 활동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실시한다.

장충교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부직원 및 일반인 모두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도, AI 반려로봇으로 독거노인 외로움 덜고 건강 살핀다

전남도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반려로봇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말벗 기능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준다.

이 로봇은 어린이 모습을 한 봉제 인형으로 제작해 친근감을 높였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사회적 고립, 정서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반려로봇을 확대·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 24억원, 도비 6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독거노인 1100명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3년간 유지·관리에 나선다.

반려로봇은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울감 해소부터 비대면 모니터링 진행,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말벗 역할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게 된다. 보급 대상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질병·인지능력 등 평가를 통한 우울·은둔 독거노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시·군별 배정 수량은 각 50대다.

김수권 기자

# GIST·육군 상무대, "AI과학기술강군 육성" 맞손

### 국방혁신 4.0 기반 광주·전남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업무협약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와 지난 7일 GIST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일 GIST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GIST 임기철 총장, 기계공학부 이재욱 학부장, 최경환 교수,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장 양태봉 소장,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강경일 대령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로봇, 모빌리티 및 AI 분야 공동 기술기획 및 연구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행 ▲학술 및 전문발전세미나, 연구자료 발간 협력 ▲기술 및 전문 연구인력 교류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 모빌리티 및 인공지능(AI) 분야는 국방혁신 4.0에 근거한 'AI 기반 첨단 핵심 전력 확보'에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 AI, 로봇, 드론으로 구성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핵심이다.

GIST와 육군 상무대는 광주·전남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연구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수행 등 AI 기반 첨단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의 기획·연구개발, 인력 교류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GIST의 로봇, 모빌리티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기술 협력이 국방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역량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와 지난 7일 GIST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GIST 임기철 총장, 기계공학부 이재욱 학부장, 최경환 교수,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장 양태봉 소장,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강경일 대령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지스트 제공)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1.4MW			
2. 사업계시예정일 : 2023. 11			
3. 사업운용기간 : 2023. 11 ~ 2048. 10(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11. 02. ~ 2023. 11. 13.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왕곡1호 태양광발전소	서바다	99.56	(1,178㎡/20,320㎡)
2. 나주왕곡2호 태양광발전소	서미루	99.56	(893㎡/20,320㎡)
3. 나주왕곡3호 태양광발전소	김현숙	99.56	(915㎡/20,320㎡)
4. 나주왕곡4호 태양광발전소	김선희	99.56	(831㎡/20,320㎡)
5. 나주왕곡5호 태양광발전소	문정애	99.56	(922㎡/20,320㎡)
6. 나주왕곡6호 태양광발전소	임만호	99.56	(836㎡/20,320㎡)
7. 나주왕곡7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주	99.56	(884㎡/20,320㎡)
8. 나주왕곡8호 태양광발전소	김미숙	99.56	(1,145㎡/20,320㎡)
9. 나주왕곡9호 태양광발전소	박용순	99.56	(882㎡/20,320㎡)
10. 나주왕곡10호 태양광발전소	김준필	99.56	(1,199㎡/20,320㎡)
11. 나주왕곡11호 태양광발전소	정준길	99.56	(979㎡/20,320㎡)
12. 나주왕곡12호 태양광발전소	조호진	99.56	(895㎡/20,320㎡)
13. 나주왕곡13호 태양광발전소	송원수	99.56	(825㎡/20,320㎡)
14. 나주왕곡14호 태양광발전소	(주)일양에너지이허빙	99.56	(1,686㎡/20,32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ㄴ단 421 특별상속한정승인사 망 자 : 망 방영학 (650303-1637039) 최 후 주 소 : 순천시 이수로 226-1

위 망 방영학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1월 9일

공 고 인 : 방영자, 방정숙, 방영란, 방돌이.  
주 소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68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1월 2일  
공 고 기 간 : 2023. 11. 9 ~ 2024. 1. 9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 ㄴ단 469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 망 서양석 (430503-1006426) 최 후 주 소 : 순천시 중앙1길 16, 205호(장천동)

위 망 서양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11월 9일

공 고 인 : 허희숙, 서원, 서도원.  
주 소 : 순천시 중앙1길 16, 205호(장천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11월 2일  
공 고 기 간 : 2023. 11. 9 ~ 2024. 1. 9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